

함글함글

가족이 신앙교사입니다 신 6:5~7, 엡 6:4, 삿 2:10
2021년 주님의교회 표어



433
2021.3.14

오늘의 말씀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_스가랴 9장 9절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2 | 신년 특집 | 4 | 섬김과 나눔 | 6-14 | 청소년숲 겨울온라인수련회 |
| 3 | 교회 소식 | 5 | 사역소개 | 15-16 | 목회칼럼, 공동체소식 |



그날의 현장

배경에 녹색이나 청색 스크린을 걸고 촬영하여 둘 이상의 화면을 합성하는 기술을 흔히 '크로마키'라고 합니다. 텔레비전 뉴스의 일기예보 장면은 대개 크로마키 기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주님의교회에서도 크로마키 작업을 위해 녹색 스크린을 겁니다. 유아숲 비대면 예배를 위한 동영상 촬영 현장, 불편한 공간과 부족한 장비지만, 열정과 숨씨로 그 모든 빈 곳을 채웁니다.

자녀는 부모의 스승

자녀가 부모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녀들이 부모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그들로 인해 부모들이 많이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년특집으로 현직 아빠이며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많은 함글함글 기자가 쓴 ‘가족을 통해 배우는 신앙 이야기’와 신앙교육에 대한 좋은 책에서 명문장을 뽑아 소개하는 ‘책속의 명문장’을 연재합니다.

함글함글

가족을 통해 배우는 신앙 이야기
아이에게 배우는 집사 아빠

아이가 머무르는 곳, 내가 머무르는 곳

삼일절이다. 오랜만에 집에서 영화를 보려고 어젯밤 결재를 해두었다. 마침 비오는 날이라 어두컴컴해 커튼을 치고 소파에 앉으니 영화관이 따로 없다. 오늘 볼 영화는 삼일절 기념으로 '항거 : 유관순이야기'이다. 영화관 가본지도 오래되었는데 영화관 분위기를 즐길 마음에 내심 설레었다.

아이들이 옆에 와서 앉는다. 같이 영화를 보고 삼일절과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이들 손에는 어제 중고서점에서 구입한 학습만화가 한 권씩 들려 있었다. 영화를 같이 보기 위해 옆에 앉은 것이 아니었다.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면 안될 거 같아서 영화관 분위기에서의 영화시청은 포기하고 불을 켜 주었다.

영화를 보고나서 점심을 먹고 책방으로 들어왔다. 오늘의 성경필사를 하고 읽기를 계획했던 책을 읽기 위해서다. 아이들이 또 따라서 들어와 내 앞에 마주 앉는다. 이번에도 아까 보던 책(세트로 구입했더니 오늘 다 읽을 작정인가보다)을 펴놓는다.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날이면 아이들과 같은 공간에 있을 때가 많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아이들도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본다. 자기들에게는 재미가 없는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보고 있으면 다른 방에 가서 놀아도 되는데 꼭 옆에서 다른 뭔가를 한다. 컴퓨터로 할 것이 있어서 PC앞에 앉으면 언젠지도 모르게 들어와 자기 책상 앞에 앉아 또 뭔가를 한다(참고로 우리집은 한 방에 가족들 책상이 모두 모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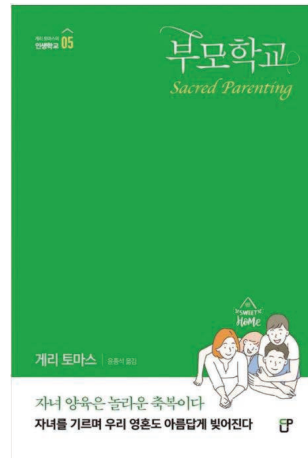
책방에서 스마트폰으로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한 친구는 앞에 있는 안락의자에 앉아 책을 보고 한 친구는 내 옆에서 휴일에만 허용된 게임을 하고 있다.

가만히 보면 아빠를 따라다니는 거 같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던지 어느 순간 아이들도 그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아빠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 무의식적으로 아빠의 행동을 따라하고, 말을 따라하고, 그 말 속에서 흘러나오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배우게 된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많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본다. 무엇 때문에 그 곳에 머무르게 되는 걸까? 몸과 마음이 편해서? 재미가 있어서? 내 곁에서 머무르는 아이들을 보며 나는 누구의 곁에, 왜 그곳에 머무르는지를 생각해본다. 그리고 소망한다.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손과 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머무르기를.. 오늘도 내 곁에 있는 아이들이 나의 신앙교사가 되었다.

책 속의 명문장

부모학교



부모학교, 게리 토마스 지음, 윤종석 옮김, 도서출판CUP, 2021

자녀를 두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임을 깨달으면 자녀 양육의 시련과 희생을 감내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하나님 중심의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행동한다. 자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자녀에게 다가가 그 삶에 개입하며 성경적으로 바로잡아 주고 사랑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안다. 나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본보일 수는 있다.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아니 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참으로 자기 가족을 즐거워할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심오한 경이의 하나를 놓치는 것이다.

자녀들은 자신을 향한 부모의 전폭적 헌신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의 분노 반응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의 복을 위한 뜨겁고 애절한 관심임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반응에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듯이 자녀 양육도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준다.

자녀를 기르려면 왜 부모 자신부터 깨끗해야 할까? 자식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일부러 판박이처럼 우리를 따라하게 될 자식들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는 드라마틱한 영적 유산이다.

죄에 빠질 때 대개 우리는 자기 자식들과 손자손녀들을 영적으로 노출시킬 빈틈을 열어 놓는 것이다. 이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유혹과 시험에 견고히 맞설 각오가 생겨야 한다.

우리는 발자국을 남기는 일을 피할 수 없다. 자식을 둔다는 것은 다른 인생에 어찌면 몇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유일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의 발자국은 우리 자녀들을 어느 방향으로 데려갈 것인가?

부모의 책임을 다하려면 그리스도인다운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자신이 아무리 '중요해'보여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 더 중요한 일들을 하실 수 있음을 기대해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를 마음을 다해 자상히 보살피는 중대한 영적 교훈도 배워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점점 떠나 독립적인 존재가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이를 세상에 홀로 던져두시지 않음을 절대로 잊지 말라. 당신의 자녀에게 그분은 사랑하는 부모를 주셨고, 당신이 갈 수 없는 곳에 함께 거주할 인도자요 위로자이신 성령을 주셨다. 설사 아이가 그분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며 아이를 빛으로 부르신다.

교회 소식

가족공모, “나의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에서는 2021년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나의 주님의교회”라는 주제로 가족공모전을 시행한다. 이 공모전은 팬데믹으로 인해 전혀 새로운 비대면 상황을 맞아 지난 1년의 시간을 보낸 주님의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나누는 소중한 꿈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가족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참가대상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
부문	그림, 웹툰, 콜라주, 시, 수필, 일기, 영상, 음악 등 다양한 장르
접수기간	2021. 3. 14 ~ 3. 27 오후 4시
접수방법	이메일 및 우편접수 중 택 1 이메일 : pcl19880626@gmail.com 우 편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길16 정신여고내 주님의교회 4층 유아숲 (당일 소인 유효)
전시·심사	2021. 4. 4 (주일) ~ 4.10 (토) 교인 스티커 심사
시상	2021. 4.11(주일)
작품반환	2021. 4.11(주일)

공모한 작품 가운데 최우수작품 1명을 선정, 주님의교회상이 수여되며, 유아숲·유소년숲·청소년숲·청년숲·장년숲 별로 각각 장로회상·안수집사회상·권사회상·여선교회상·남선교회상이 수여되고, 참가자 전체에게 참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함줄함울

교회 소식

홀리 선데이 해피 1피엠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면서 젊은이교구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한 온라인 겨자씨 모임이 2021년 상반기부터 시작되었다. “홀리 선데이 해피 1피엠(Holy Sunday Happy 1PM)”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겨자씨 모임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교회 젊은이교구 식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오랜 기도의 마음을 통해 마련되어 진행중이다. 아무리 심각한 재난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며, 주님의교회와 젊은이교구가 온라인 겨자씨모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한다.

한시영 목사

Holy Sunday Happy 1PM

거룩한 주일, 행복한 오후 1시 온라인 겨자씨 모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의교회 8교구 겨자씨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모임기간 3/7(주일) - 6/27(주일)
- 모임시간 주일 오후 1시 - 2시(1시간)
- 모임방법 'ZOOM' 어플을 이용한 온라인 겨자씨모임
- 문 의 한시영 목사 (010-8935-5048)

교회소식

온라인 겨자씨 모임, 교구 대심방

2021년 온라인 겨자씨모임 봄학기가 3월10일(수)부터 시작되었다. 매주 수요일마다 담임목사의 겨자씨 전체교육영상과 교안이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된다. 겨자씨 가족들은 먼저 교육영상을 시청한 후 겨자씨 후속 나눔모임을 갖게 된다. 듀오(duo) 앱을 활용하여 후속모임을 할 수 있는데 듀오 앱은 앱스토어를 통해서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다. 기존에 줌(Zoom) 앱을 활용하여 모였던 겨자씨는 그대로 모일 수 있다.

더불어 3월부터 온라인 교구 겨자씨 대심방이 시작되었다. 각 교구목사가 온라인 앱 듀오(duo)를 통해서 겨자씨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통해 만나 심방할 예정이다. 겨자씨 가족들은 대심방 일정을 교구목사와 상의하여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다. 1학기 온라인 겨자씨모임 일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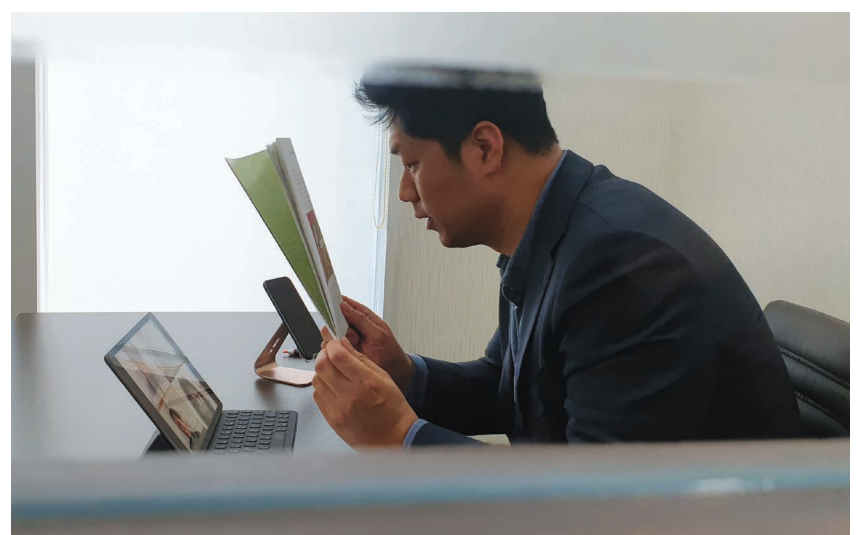
허준 목사

온라인 겨자씨 일정(3~6월)

월 / 주차		전체교육영상 시청	교육담당자	후속 겨자씨 모임
3월	1주차	3/10(수)~12(금)	김화수 담임목사	3/12(금)~14(주일)
	2주차	3/17(수)~19(금)	소그룹담당목사	3/19(금)~21(주일)
	3주차	3/24(수)~26(금)	김화수 담임목사	3/26(금)~28(주일)
4월	4주차	4/14(수)~16(금)	김화수 담임목사	4/16(금)~18(주일)
	5주차	4/21(수)~23(금)	소그룹담당목사	4/23(금)~25(주일)
	6주차	4/28(수)~30(금)	김화수 담임목사	4/30(금)~5/2(주일)
5월	7주차	5/12(수)~14(금)	김화수 담임목사	5/14(금)~16(주일)
	8주차	5/19(수)~21(금)	소그룹담당목사	5/21(금)~23(주일)
	9주차	5/26(수)~28(금)	김화수 담임목사	5/28(금)~30(주일)
6월	10주차	6/9(수)~11(금)	김화수 담임목사	6/11(금)~13(주일)
	11주차	6/16(수)~18(금)	소그룹담당목사	6/18(금)~20(주일)
	12주차	6/23(수)~25(금)	김화수 담임목사	6/25(금)~27(주일)

교회 소식

온라인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에게 싱그러운 봄은 여전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이 모두 서툴렀지만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심방 가운데 더 깊은 신앙과 삶의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성 목사

섬김과 나눔 사랑의 털모자 세이브더칠드런에 기증

(사)섬김과 나눔(회장 김화수 담임목사)은 매년 성탄절기에 하나님의 생명사랑 이웃사랑 말씀을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해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을 개최하고 후원금을 모금하여 교회와 지역사회의 불우이웃을 지원하고 있다.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은 2012년에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열악한 자연환경에서 출생하는 유아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유용한 사랑의 털모자를 늘푸른대학 뜨개질반 어르신들과 교인들이 제작 후원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시작되었다.

매년 거룩한 성탄절기에 이 캠페인을 통해 사랑의 털모자를 제작 후원하는 사역과 함께 이웃사랑 후원금을 모금하여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교회의 대외 구제 및 선교사역의 섬김과 나눔의 이벤트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20년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제8회)은 교회 성탄절기 행사로서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전후 3주간(2020.12.13~27) 김마리아회관 1층 로비에서 개최되었는데, 사랑의 털모자는 교회 교인과 정신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동참하여 사랑의 털모자를 직접 뜨개질하여 후원해 주었고 대외 구제 후원금은 교회가 성탄절 헌금으로 모금해서 교내와 지역사회의 불우이웃을 지원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사랑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캠페인을 시작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사랑의 털모자는 8,893개를 제작 지원하였고 불우이웃 돕기 후원금은 총 1억 1,117만 5,000원을 모금하여 9,244만 7,000원을 지원하고 남은 1,872만 8,000원은 2021년 불우이웃 지원 재원으로 유보하고 있는데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명사랑 사랑의 털모자 제작 지원** : 총 8,893개 제작, 3,600만 원 지원
 - 국내 : 영 유아, 아동, 독거어르신, 중증환자·호스피스 환자 등에 총 862개
 - 해외 : 케냐 300개, 헝가리 200개, 키르기스스탄 100개, 세이브더칠드런 5,700개, 총 8,031개



- **이웃사랑 국내·외 불우이웃 돕기 후원금 지원** : 총 5,644만 7,000원 지원
 - 국내 : 불우한 아동, 청소년, 탈북민, 무의탁어르신 등 불우이웃 지원 1,979만 7,000원
 - 해외 : 결식아동 195명 급식 지원 1,365만 원(유니세프, 기아대책과 협력)
 - 코로나19 재난으로 생활이 어려운 아동, 청소년, 무의탁어르신, 다문화 가족, 해외선교사 등 불우이웃 지원 2,300만 원(해외선교사는 기아대책과 협력 지원)

지난 3월 9일 2020년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사랑의 털모자 1,731개를 세이브더칠드런에 후원하면서 작금 10년을 맞이하게 된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이 김화수 담임목사의 말씀과 같이 앞으로 ‘for others’에서 ‘with others’의 캠페인으로 성장 발전하여 우리 교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나님의 생명사랑 이웃사랑 말씀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섬김과 나눔 사무국

섬김과 나눔 2021년 제1차 회원 총회 개최

2021년 3월 2일, 정신여중고 김마리아 회관 주님의교회 중예배실에서 (사)섬김과 나눔 법인 회원 및 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1차 회원 총회가 개최되었다.

법인은 작년 12월 임기가 만료된 회장, 고문, 이사 여섯 명의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2020년 12월 11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서면결의 총회를 개최하고 법인 회장, 고문, 이사 여섯 명을 신임 임원으로 임하였으나 공증 법인으로부터 서면결의에 의한 총회 공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공증을 받지 못해 법인 임원 변경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3월 2일 대면 총회에서 지난해 서면결의 총회에서 선임한 회장 김화수, 고문 양동훈, 이사 김창안, 이용수, 황용환, 최재경, 정의영, 이대혁과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성구 감사 후임으로 감사 동현수를 3월2일 대면 총회에서 법인 임원으로 선출하였다. 이날 회원총회에서는 임원선(안) 외에 2020년 수입지출결산보고서(안)과 2021년 1차 추경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상정의안대로 승인하였다. 섬김과 나눔 사무국



사역소개_이렇게 섬깁니다
방송뉴스팀

성도들의 눈과 귀가 되는 일

2019년부터 작지만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에 방송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두해, 그동안 교회 안팎의 많은 소식들이 방송뉴스로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방송뉴스,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서 방송뉴스팀의 대본을 담당하는 이진명 전도사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방송뉴스의 모든 것, 이진명 전도사가 밝힙니다!

함글함글

현재 방송뉴스 제작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방송뉴스 대본 담당 이진명 전도사입니다. 저희 방송팀요, 뉴스 촬영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이은석 목사님, 카메라 담당해 주시는 이영신간사님과 박진현 집사님, 아나운서로 섬겨주시는 집사님 4분(유혜용 집사님, 최수희 집사님, 이주선 집사님, 박병기 집사님)과 뉴스 대본을 작성하는 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는 다른 교회나 다른 방송 뉴스가 있는 신가요?

저는 대본을 작성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 뉴스 대본을 작성할 때 참고했던 것은 주님의교회 이전 뉴스였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성도 분들께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누가 담당하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텔레비전 뉴스를 많이 보았어요. 그전에는 신경 쓰지 않고 들었던 뉴스였는데, 대본을 담당하고 나서는 아나운서들이 사용하는 단어 사용과 문장의 마무리 등 텍스트 자체에 집중을 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방송뉴스도 참고했어요. 다른 교회 방송뉴스에서는 텍스트에 집중하기보다 교회 소식 중에 어떤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이 생략되어도 되는지를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방송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을 되도록 꼼꼼히 말씀해 주세요.

방송뉴스는 주중에 미리 미리 준비하고, 끝내 놓을 수 없는 사역이에요. 사역의 특성상 교회의 모든 소식이 모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이죠. 후보 광고면의 소식을 토대로 중요 광고들을 선정합니다.

선정한 광고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영상광고, 하나는 자막 광고예요. 영상광고는 광고가 나가는 동안 관련 영상이 함께 나가는 광고이고요. 자막광고는 말 그대로 화면에 관련정보만 자막으로 나가는 광고예요. 그렇게 영상광고가 선택되면 간사님께서 그 뉴스에 해당하는 자료를 미리 촬영

영해 놓으십니다. 저는 그 사이 뉴스 대본을 작성하죠.

뉴스대본이 완성되면 아나운서 집사님의 뉴스 녹화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녹화된 영상과 사전에 뉴스자료 촬영해 놓은 영상을 소식에 맞게 삽입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거쳐 뉴스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구요, 뉴스팀 다른 분들과 함께 영상을 공유해 확인하고 수정하여 최종 뉴스가 완성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보시는 뉴스는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쳐 제작된답니다.

방송뉴스에 참여하신 자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9년 청년부에서 사역할 때 옆자리 계셨던 청년부 사역자분이 처음 방송뉴스 시작

역할을 말씀해 주세요.

교회 방송뉴스를 만들 때 대본, 촬영, 편집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중에서 제가 담당하는 건 뉴스 대본인데요, 대본 작성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일주일 동안 각 부서에서 들어온 광고들을 취합해 후보의 광고면이 완성이 되고요, 광고에 실린 교회 소식을 기반으로 뉴스 대본이 작성됩니다. 보통은 방송뉴스로 나가는 광고의 담당 목사님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한번 더 거쳐야 해요. 더 상세하게 언급되어야 하는 내용은 없는지,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한 후 대본을 작성하고, 촬영 간사님과 아나운서분께 자료 넘겨드리는 것까지 제가 담당하는 일입니다.



할 때 담당하셨던 분인데요, 옆자리에서 뉴스 제작 준비과정부터, 촬영, 편집까지 아주 가까이에서 보기만 하던 일을 제가 대본을 담당하게 될 줄 그 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뉴스팀에 합류하게 된 건, 2019년 12월 목양실 전도사로 사역 시작하면서였어요. 교회 모든 광고가 취합되는 후보 담당 간사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여서 뉴스 광고를 파악하기에 최적의 자리라 생각하시고 일을 맡겨주신 거 같아요. 그렇게 매주 광고 파악하고, 정리하는 일이 1년 3개월이 되었네요. 이제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방송뉴스를 만들 때 전도사님께서 주로 하시는

이전에 방송이나 미디어 경험이 있으셨는지요?

방송을 경험한 적은 없었는데, 미디어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역을 시작한 후에도 사용을 해 왔었어요. 사진과 영상을 편집해 교회 짧은 광고 영상을 제작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부서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많이 사용해 왔었어요. 하지만, 방송뉴스처럼 전문 분들과, 전문화된 영상 만드는데 참여하는 일은 처음이에요.

방송뉴스 만드시는 중에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나 실수, 해프닝이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을 때인데요, 작년 8월 여름 휴가였

던 걸로 기억합니다. 간사님께서 갑자기 전화해서 비상사태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아서 무슨 일이나 물어보았죠. 코로나가 심해지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아나운서 집사님들도 교회 출입이 어려워져 아나운서를 교역자분들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급하게 연락받고 휴가 중에 교역자 분들에게 전화했었는데 다들 수련회, 성경학교 준비 기간이라 부탁드리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다행히 스케줄이 한 주 정도 여유가 있었던 청년부 이충만 전도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 전도사님들께서 2주씩 뉴스를 섬겨주셨어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있었어요. 성도분들이 함께 섬기고 계신 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 사역하고 계신 전도사님들을 알 기회가 없었는데, 뉴스 보면서 교회 안에 함께 섬기고 계신 사역자분들을 알게 되어 좋았다고 하셨어요. 또 아나운서 전도사님의 해당부서 친구들이 놀다가 뉴스하는 시간 되면 TV나, 컴퓨터 앞으로 와서 “우리 전도사님이다!” 하면서 그렇게 반가워 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괜히 제가 더 기쁘고, 즐거웠어요. 몇 달간 수고해 주신 전도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도 전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에 교회 공동체에 하시고 싶은 말씀!

여러분께서 보시는 교회광고 뉴스는 매주 바쁜 시간 안에서 제작됩니다. 후보의 광고면이 완성되는 금요일 오후에 대본이 작성되고, 토요일까지 촬영과 편집이 모두 끝나야 하죠. 바쁜 일정도 일정이지만, 촬영장에 돕는 손길이 많이 필요해요. 간사님 또는 카메라 담당 집사님, 아나운서 집사님, 거의 두 분이 촬영장 세팅, 메이크업, 뉴스 촬영과 뉴스자료 촬영까지 촬영 전반을 담당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메이크업이나, 촬영장 세팅, 뉴스자료 촬영 등 뉴스팀과 함께 하실 분들이 몇 분 더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주님의교회 성도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 교회 소식을 전하는 뉴스팀과 함께 하실 분 계시면 연락주세요! ^^ 마지막으로 뉴스팀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모두가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글함글

청소년
겨울온라인수련회

빈틈 채워 함께 걷는 '10대' 그리스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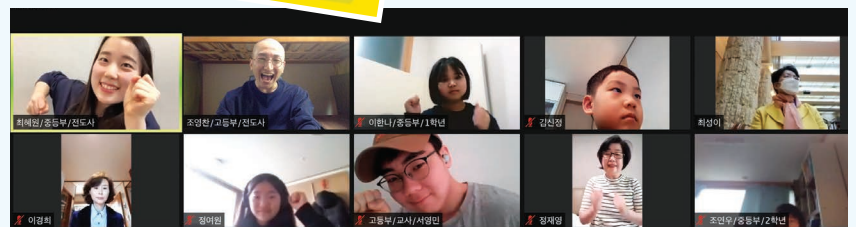
청소년숲 온라인수련회. 시즌2 - 옴니버스 챌린지

청소년숲 2021년 겨울수련회는 작년 여름온라인수련회에 이어, 옴니버스 챌린지-시즌2로 준비되었다. 여름수련회와 마찬가지로, 함께 모일 수 없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주일에는 온라인 예배로, 평일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도전 과제(6가지 영역: 나, 가정, 친구, 신앙, 미디어, 환경)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2월21일(주일)~28일(주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수련회는 미션을 완수할 경우 적립금이 쌓이고 적립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또한 온라인 수련회 장점을 이용하여, 여수지역 7개 교회 40여 명의 친구들과 강릉, 제주, 미국 등의 주님의교회 청소년숲 가족 260여 명이 함께 참여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있는 '빈틈'(아픔,

슬픔, 고통, 고난, 부족함, 연약함 등)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끌어안고 도와주며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take), 하나님을 본받는 자(give), 예수님과 함께 걷는 10대 그리스도인(walkman)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임경순 목사



• 수련회 기획 의도 •

1. 청소년숲 가족들이 동일한 도전과제를 실행함으로 흠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디아스포라), 교회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한다.
2. 지난 여름 온라인수련회를 통해 실제 삶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이어지는 겨울 온라인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과 실천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경험하도록 한다(미션을 완수할 때마다 적립금이 쌓이고, 모아진 적립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된다).
3. 학업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 타인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가족과 친구, 이웃과 사회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가족과 친구, 이웃과 사회를 향해 자신을 개방할 때, 공동체의 격려와 지원을 통해 불편함과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고,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고, 더 나아가 이웃과 세상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돕는다.
5.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6. 도전과제를 수행하며,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할 때의 큰 기쁨과 열매를 경험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회
겨울온라인수련회

1. 나 챌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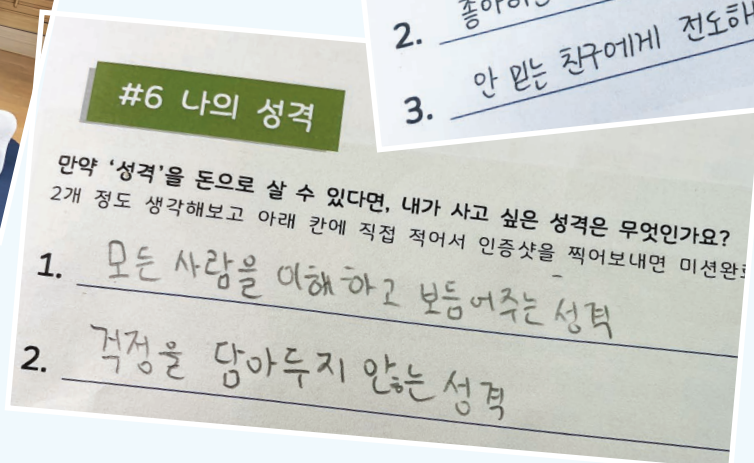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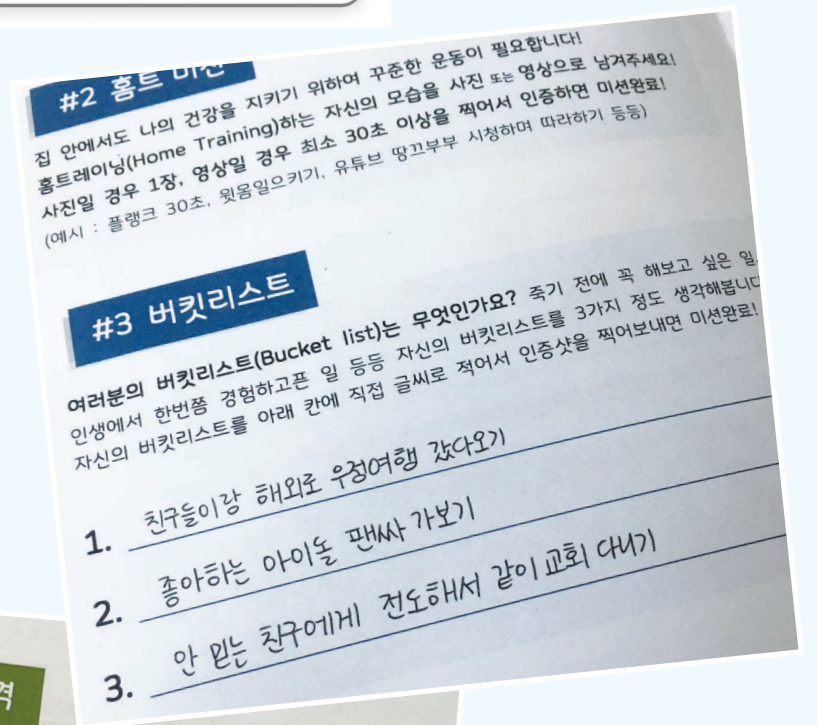
제 목	나를 위한 빙고빙고!
주 제	스스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을 빙고로 채워보자!
기대효과	① 다양한 측면의 '나'를 알아가고 인정하며 존중하는 시간을 갖는다. ② 내 안에 가치와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아는 힘과 이해를 기른다. ③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곧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확장시킨다.
진행방법	① 빙고 활동지(3x3 = 9)와 필기도구를 준비한다. ② 총 9개의 미션 중에서 원하는 미션을 수행하고 해당 칸을 색칠한다. ③ 최소 2줄 빙고를 완성한 후에 빙고판을 사진 찍어서 미션수행 인증샷들과 함께 전도사님의 메일(또는 카카오톡)로 전송하면 나 챌린지 완료!



도전! 나 챌린지!

나를 위한 빙고빙고

#1 포스트잇	#2 홈트 미션	#3 버킷리스트
#4 과거의 나	#5 나의 선물	#6 나의 성격
#7 빈틈 채워	#8 함께 걷는	#9 그리스도인



2. 가정 챌린지

첫 번째 챌린지

제 목	가족과 함께 보드게임을!
주 제	보드게임이나,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간단한 놀이로 함께하는 시간 만들기.
기대효과	① 어려운 형편이지만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본다. ② 서로의 플레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한다. ③ 놀이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칭찬과 격려의 시간으로 만든다.
진행방법	① 집에 비치된 보드게임이나 간단한 놀이도구를 준비한다. ② 놀이를 진행한다. ③ 인증샷과 소감문을 전송한다.

두 번째 챌린지

제 목	청소의 신
주 제	화장실 청소 하는 방법을 배우고, 배운 방법대로 청소하기.
기대효과	① 작고 하찮게 보이는 일 가운데 숨겨진 의미와 기쁨을 발견한다. ② '청소'에 대한 나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고, '청소'를 재해석하고, 새롭게 만나본다. ③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공동생활공간을 청소함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실천한다.
진행방법	① 가정청소길라잡이 설명서를 따라 화장실을 청소한다. ② 인증샷을 찍어 전송한다. ③ 소감문 : 청소란 무엇인가? 청소를 하며 느낀 점은? 가족들의 반응은?



가족들과 함께한 빙고 게임

3남매인 우리집은 어릴적가족들과 함께 놀 시간이 많았
다. 함께 사소한 달리기 시합도 하고, 햄버거 게임등도 하
며 좋은 추억이 많았는데 우리가 점점 학년이 올라가고
언니도 성인이 되면서 함께 놀 수 있는 시간도 기회도 많
이 없었어 아쉬웠다. 그래서인지 이번 가정 챌린지를 통
해 할 수 있었던 빙고 게임이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다.
빙고 게임을 하면서 함께 웃고, 작게 소리지른 기억이 오
래 남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도 종종 시간내어서 같이
게임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주보고 밥먹으며 대화하는
시간이라도 늘었으면 좋겠다. 🙏❤️



청소년
겨울온라인수련회

3. 신앙 챌린지

첫 번째 챌린지

제 목	찬양함엔 끝이 없다!
주 제	자기 최애 노래(가요, 동요 등)를 개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기대효과	음악의 주인은 하나님! 어떤 음악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배운다.
진행방법	① 평소 가장 좋아하는 최애곡의 멜로디와 가사를 한번 더 확인한다. ②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 개사를 한다. ③ VIP 어플에 노래 제목과 가수, 바꾼 제목과 개사한 가사를 올린다. ④ (보너스 미션)자신이 개사한 노래를 가지고 찬양한 영상(녹음)을 VIP 어플에 링크를 걸어줄 경우, 1,000원의 보너스 기부금이 적립된다.

두 번째 챌린지

제 목	Light on, Pray on!
주 제	기도제목과 적고 자신, 타인, 사회,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
참 고	“Light on(불을 켜다!)”은 “Pray on(기도의 불을 켜기)” 위한 구별과 준비입니다. 불을 켜고, 마음을 잡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기대효과	자신뿐 아니라 타인, 사회,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의 기쁨을 누리고, 함께 걷는 것의 유익을 느낄 수 있다.
진행방법	① 수련회 키트에 있는 활동지와 개인 펜과 자신만의 무드등 (start mission)을 준비한다. ② Light를 on한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무드등을 켜다.) ③ 활동지에 자신을 위한 기도제목, 타인, 사회, 열방을 위한 기도제목을 기입한다. ④ 그럼, 이제 Pray on! ⑤ 기도한 자리를 예쁘게 찍어서 VIP 어플에 인증!



김하영/2005/고등부
4일 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제목은?]
Stay

[가수명 or 그룹명은?]
블랙핑크

[개사 내용]
Pray
(원곡 : 블랙핑크 Stay)

힘들고 지친 일들이
많았던 하루를 보내고
기대만 한 곳 하나도 없이
외로운 기분이 들 땐
네 옆에 함께 계신 주님께
기도해볼래
I just want you to pray

점점 잊혀져 가는 너의
일상 속에 감사
천천히 되돌아보면
모든 게 주님의 은혜
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드려봐
그렇게 pray pray pray with me

날 위로하는 주님 목소리
이렇게 날 울리는데 eh eh
네 감정도 함께 다 나눠봐
기쁨 슬픔 그제 워든

어떠한 말도 다 상관없으니
주님께 털어놔봐
온전한 마음으로 간구한다면
주님은 들어주셔
굳이 거창하게 할 필요까진 없어
그저 주님께 pray with me

(It goes a little something like)
Lalalalalala Lalalalalala Lalalalalala

지금 나와 함께 할래 어렵지 않아
그저 주님께 pray with me

윤예주/2008/학생
5일 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제목은?]
소우주

[가수명 or 그룹명은?]
이승윤 (진짜 원곡: BTS)

[개사 내용]
내가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
발걸음이 느려도
기다리며
함께 걷는 것
그런것이 동행
모두와 함께
빈틈을 함께 채워
끝까지 동행하는 삶
빈틈 채워
하나님과
함께 걷자

그게 바로
워크맨의 삶
함께 할래
사실 천천히 발을 맞추며
걷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
하지만 함께 걷는다면
그 이상의
행복이 느껴질 거야
즐거워
라는 말이 나오고
혼자였으면 힘든
것도 같이 해본다면 우린 함께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거야

▶ 개사한 찬양 바로가기



'prayer'-김하영



'워크맨' - 윤예주

청소년순
겨울온라인수련회

4. 친구 챌린지

제 목	10대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feat. 그 청년 바보의사)
주 제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이웃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기대효과	① '이웃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그 청년 바보의사' 책을 통해 구체화하는 간접경험을 갖는다. ② 질문지와 활동지를 통해 내 이웃을 돌아보고 선물하며 사랑을 나누는 직접경험을 갖는다.
진행방법	① 책을 읽는다. ② 준비한 질문지와 활동지를 각각 수행한다. ③ 책(활동)을 통해 독후감(느낀점)을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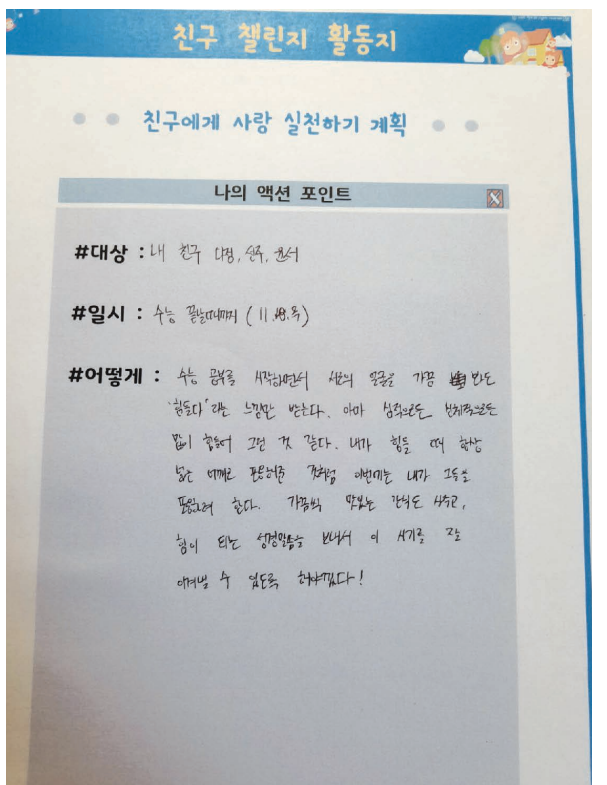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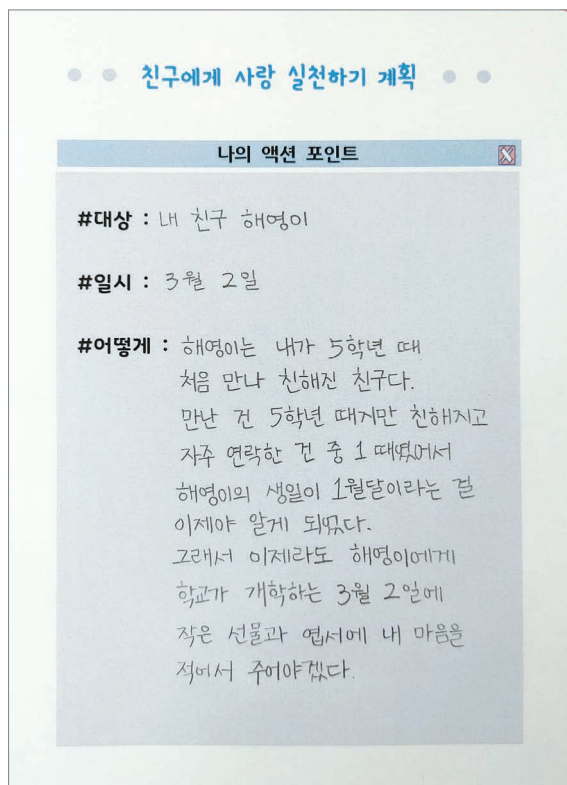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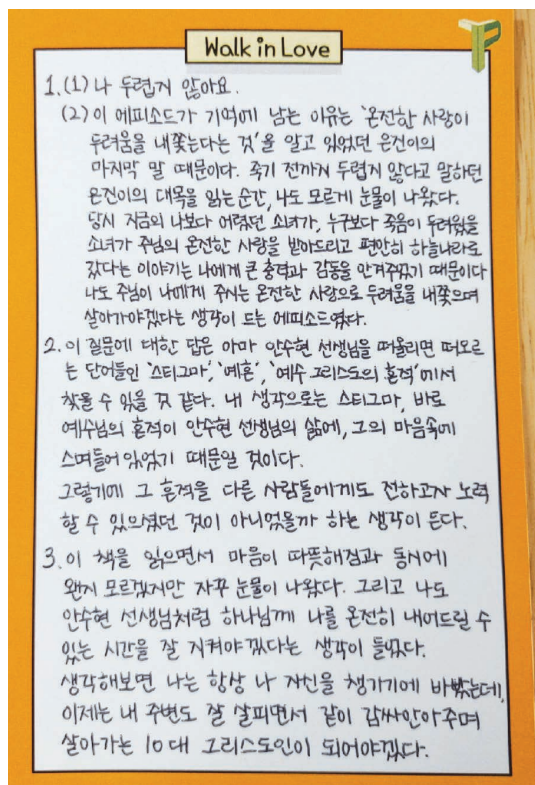
책 제목: 그 청년 바보 의사

질문 1.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온진이 이야기이다. 그 이유는 내가 지금 굿네이버스를 통해 기부를 해주는 아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 친구는 나와 동갑이지만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나도 내가 도와주는 아이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싶다.

질문 2. 안수현 선생님께서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은 받는 만큼 줄 수 있다고 한다. 나도 사랑 받는 만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질문 3. 그 청년 바보 의사를 통해 베푸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받는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친구 챌린지를 통해서 내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서로 도와주며 지내야겠다. 내 친구들은 정말 소중한 다!!



청소년
겨울온라인수련회

5. 환경 챌린지

첫 번째 챌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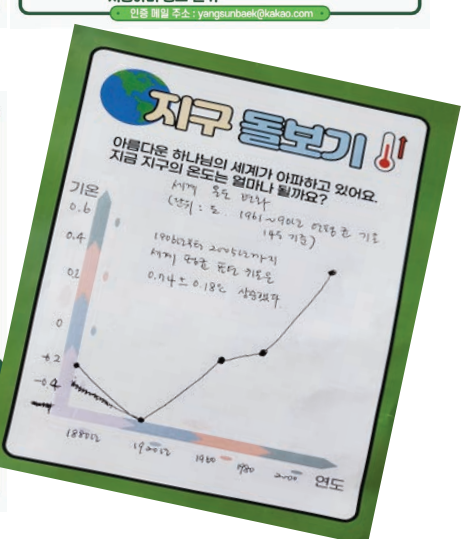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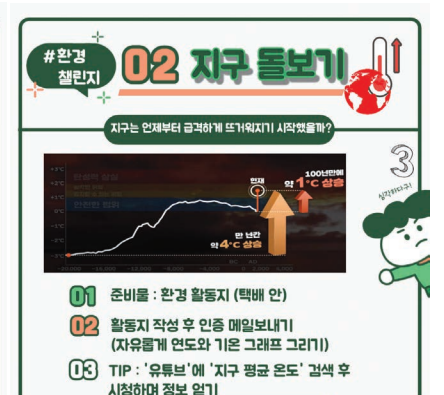
제 목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 하나님의 피조세계
주 제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 따라가기
기대효과	개인의 이익을 위한 소비 물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운 창조세계로 시선을 확장한다.
준 비 물	성경책, 휴대폰(또는 카메라), 안내지(성경 본문)
진행방법	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에 대한 본문 찾기(또는 안내지 본문 참고) ② 창조 또는 자연에 대한 본문과 어울리는 사진 찍기 ③ 선택한 성경본문과 사진을 각 찍어서 인증하기
예 산	필요 예산 없음

두 번째 챌린지

제 목	지구 돌보기 - 기후 위기 시대
주 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창조세계를 보며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 공감하기
기대효과	① 우리의 이웃의 개념을 확장(나 중심에서 우리 그리고 모든 자연 피조세계)한다. ②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발견한다. ③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지구 기후위기에 대하여 안다.
진행방법	① 년도와 온도 그래프가 그려진 안내지에 지구 온도 그래프 그리기 ② 안내지에 적힌 질문 적어보기 ③ 완성본 사진 찍어 인증하기
예 산	필요 예산 없음

세 번째 챌린지

제 목	잔반 제로 챌린지 - 우리의 작은 시작
주 제	우리의 일상 속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기대효과	① 일상 속에서 청지기로서의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 ② 먹을 만큼의 음식을 먹으며 필요 이상의 소비를 줄인다. ③ 음식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준 비 물	휴대폰(또는 카메라)
진행방법	① 평소 먹는 식사 또는 간식 시간을 이용한다. ②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는다. ③ 덜어 먹기 위해 사용한 접시들을 다 먹었으면 인증사진을 찍는다. * before 사진과 after 사진을 찍는다.
예 산	필요 예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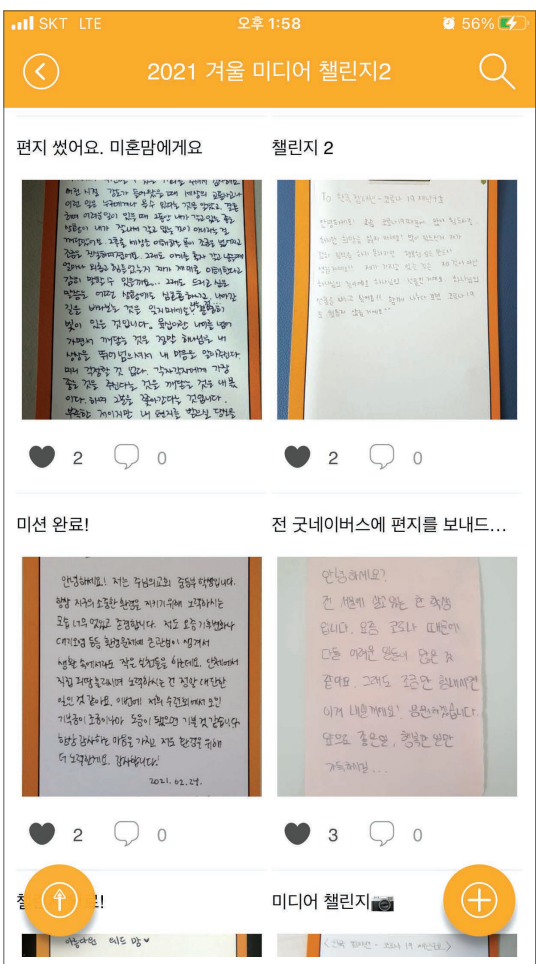
6. 미디어 챌린지

첫 번째 챌린지

제 목	기부 관련 영상 시청 (feat. 청소년숲 사역자)
주 제	기부할 때 올바른 태도는?
기대효과	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정신을 배운다.(마 6:3) ② 배려를 받은 이가 부담을 안 느끼는 선에서 주는 것임을 배운다.
진행방법	① 참가자들은 VIP Ministry 앱 내 미디어 챌린지1에 있는 영상을 본다. ② 느낀 점을 해당 영상 댓글에 적는다.

두 번째 챌린지

제 목	마음을 담아
주 제	격려와 응원 메시지를 담는다.
기대효과	① 마음을 지혜롭게 표현하는 법을 익힌다. ② 받는 이들에게 따스한 위로를 준다.
진행방법	① 굿즈박스 안에 있는 미디어 챌린지 설명서에서 기부처 목록을 보고, 한 곳을 선정하여, 동봉 되어 있던 엽서에 손 편지(or 영상 편지)를 쓴다. ② 다 쓴 편지 사진을 찍은 후 앱 내 미디어챌린지2 인증란에 올린다. (영상 편지일 경우, acksla@daum.net로 보낸다.)



청소년숲
겨울온라인수련회

공간의 제약을 넘어 감동과 함께한 시간

이번 청소년숲 겨울 온라인 수련회는 지난 여름에 이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온라인의 장점을 활용하여 여수 지역 교회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 학생들의 소감을 나눈다.

청소년숲
겨울온라인수련회
소감

나의 빈틈 채울 수 있었던 뜻깊은 날들

수련회에 참여한 지 어언 6일, 이 아니라 벌써 수련회가 끝나간다니 너무너무 아쉽다. TTT 저번에 “창문 넘어 함께 사는 10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한 여름 수련회에 이어서 이번에는 “빈틈 채워 함께 걷는 10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의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두 번째여서 그런지 챌린지도 더 알차고 재밌어진 것 같고, 나도 더 익숙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기간이 일주일이었던 것은 아쉽긴 했지만 딱 수련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적당한 기간이었다. 또 이번 수련회에는 ‘방해금지 모드’, ‘보너스 미션’, ‘쿨타임 모드’, ‘틈새 미션’이라는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덕분에 수련회를 더 쾌적하고(?) 활발하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키워드에는 없지만 스페셜 미션도 깨알같은 재미가 있었다. 매일 올려주시는 진행팁 뉴스도 수련회를 참여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서 특히 좋았던 점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채팅방 소통이 활발했다는 것이다. 이전 틈새 미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서로서로 각자의 챌린지 진행 현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격려하며 응원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았다. 두 번째는 참여자가 많았다는 것인데 여수 지역 분들과 다른 지역의 분들도 참여하셔서 더 풍성하고 행복한 수련회가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좋았던 ‘기부 제도’였는데, 미션을 클리어할수록 기부금이 쌓인다는 게 더 열심히 참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 뿌듯하고 보람찼던 것 같다.

보내주신 굿즈박스에는 뭐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놀랐다. 지난 번에도 이렇게 많이 보내주신다고?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많이 들어 있었던 것 같다. 챔피언 티셔츠, diy 무드등 키트, 엽서, 성경 미니북, 그리톡 & 키링, 현금 주머니, 목사님이 쓴다, 순식탁 선물까지!! 너무너무 좋은 선물들을 많이 받아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먼저 굿즈박스 인증샷을 올린 뒤에는 수련회의 시작인 오프닝 예배를 드렸고, 월요일엔 사전 줌 미팅에 참여했다. 수련회에 대한 안내도 받았고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들도 재미있게 했다. 그리고 드디어 23일 화요일, 본격적으로 챌린지를 시작했다.

첫째 날! 가장 먼저 친구 챌린지를 클리어했다. 친구 챌린지는 굿즈 박스에 있던 책을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에 대해 적는 것과 친구 챌린지 활동지를 쓰는 거였는데, 책 내용이 되게 감동적이었다. 안수현 의사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으로 도전한 것은 나 챌린지였다. 나 챌린지 활동지에 있는 빙고를 완성하는 거였는데, 빙고칸을 모두 채우면 추가 적립금이 있다고 해서 나는 미션을 다 했다. ㅋㅋ 이전 정말 나를 위한 챌린지였어서 진행하면서 스스로 위로도 받고 나에 대해서도 더 생각해볼 수 있었다. 요즘 집에만 있다 보니까 활동을 안 해서 체력이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홈트 미션이 특히 좋았다. :D

그리고 둘째 날! 전도사님께서 만나만나 챌린지를 참여하면 나중에 좋을 거라고 말씀해주셔서 참여했다. ㅋㅋ 사실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 즐거웠다! 에베소서 5장 1절은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 그 뒤엔 신앙 챌린지에 참여했다. 신앙 챌린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다.. 왜냐하면 보너스 미션 때문이었다.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찬양으로 개사하는 것이 미션이었는데, 보너스 미션은 그 개사한 노래를 직접 부르는 거였다! 악 내 귀가 썩는 것 같았다. ㅋㅋㅋ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활동이었던 것 같다.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깨달음도 있었고, 노래 가사를 직접 바꿔 보니까 다른 찬양들보다 뭔가 더 내 진심을 다해서 부를 수 있던 것 같다. 신앙 챌린지 미션은 하나가 더 있었는데 바로 무드등을 켜고 기도하는 거였다. 조용

한 공간에서 무드등과 함께 기도하니 더 경건해졌던 것 같고 좋은 경험이었다. 다음으로는 미디어 챌린지에 참여했다.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법에 대한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남기는 것과, 기부처 중 한 곳을 골라 직접 편지를 쓰는 활동이었다. 이것도 역시 정말 인상 깊었다. 진정으로 남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챌린지를 통해 모인 기부금을 기부하는 곳에 직접 편지도 써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셋째 날! 환경 챌린지와 가정 챌린지까지 모두 끝낸 날이다. 환경 챌린지는 소문답게 꽤 어려웠다. ㅋㅋㅋ 먼저 환경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고, 그에 대한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나는 창세기 1장 14절을 골랐고 해와 달 사진을 찍었다. 둘째 날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달 사진은 미리 찍을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 온도 그래프를 그리는 활동이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니 너무 안타까웠다. 세 번째는 잔반을 남기지 않는 미션이었는데 덕분에 밥을 남기지 않고 먹었다. ㅎㅎ 환경 챌린지는 내게 조금 낯달랐는데, 6학년 때 학교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프로젝트를 해서 환경에 되게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멋진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또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다. 가정 챌린지는 6개의 챌린지 중 마지막 챌린지였는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다. 요즘 사춘기도 오고 그래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무척 줄었고 부모님께 짜증도 많이 냈는데, 이 챌린지를 통해 아주 조금이나마 가족들과 더 시간을 보내고, 가까워진 것 같다. 앞으로도 가깝다고 소홀히 하지 말고 그 누구보다 가족을 소중하게 여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 넷째 날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틈새 미션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자면 나는 6번 중 3번의 틈새 미션에 참가했는데 모두 참가하지 못해서 정말 아쉽다ㅠㅠ 그런데 청년 쌤들께서 준비해 주신 게임들이 모두 다 정성이 느껴졌고, 재미있었다. 떨어져 있지만 화면으로나마 우리가 ‘함께’챌린지를 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고, 즐거웠다. 보너스 기부금도 받아서 좋았다. ㅋㅋ 목요일에는 비밀 회동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기부금을 받을 수 있었다! 유쾌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오늘은 수련회 챌린지의 마지막 날이다.ㅠㅠ 물론 일요일에 클로징 예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아쉽다. 오늘은 마지막 대망의 러브 미션을 한 날이다. 아니 하고 있다. 러브 미션은 6개의 챌린지를 모두 통과한 뒤에 공개되는 은밀한 미션이다! 기부금도 많고, 그만큼 난이도도 높다. 사실 오늘 10시까지밖에 할 수 없던 거였는데 목사님께서 시간을 내일 8시까지로 늘려주셨다TTT(감사합니다아아아!!!!) 첫 번째는 만나만나 챌린지. 둘째 날에 해서 패스 0 0 0# 두 번째는 챌린지 이름으로 n행시 짓고 영상 찍기! 나는 나, 가정, 환경, 신앙, 친구, 미디어를 하나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지어봤다. ㅎㅎ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 쓰고 있는 소감문이다! 쓰다 보니까 소감문이 아니라 일기처럼 된 것 같다. 하하. 내용이 길어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수련회의 마무리를 잘 한 느낌이 들어서 뿌듯하다! 소감문이 이렇게 길어진 건 그만큼 이 수련회가 의미있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는 것 같다. 정말 챌린지 하나하나, 미션 하나하나가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느끼고, ‘빈틈 채워 함께 걸어갈 수’있었던 것 같다! 수련회를 준비해주신 목사님,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모두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ㅠㅠㅠㅠㅠㅠ 덕분에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 다음 수련회는 오프라인이 될지 온라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날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수련회 소감문 끝--.

문다는 중등부

청소년수련회
겨울온라인수련회
소감

기대치를 넘어선 좋은 경험

드디어 겨울 수련회를 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교회에 가서 하겠지 하고 기대를 했지만 아쉽게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역시 청소년수련회. 온라인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를 넘어섰다. 자그마치 250명이 넘는 참가자들과 작년과 똑같이 6개의 챌린지와 특별 미션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는 틈새 미션이 있었다. 아쉽게도 일정 때문에 한 번밖에 참여하지 못했다. 사실 줌으로 하는지라 일방적으로 진행될 줄 알았는데, 엄청 재미있었다. 모두가 열심히 참여하고 스틸 넘쳤다. 전도사님들께서도 진행을 엄청 열심히, 그리고 잘 하셨다!!

6가지의 챌린지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자면, 먼저 '친구'챌린지에 도전했다. <그 청년 바보의사> 라는 책을 읽고 생각하는 미션이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다. 사랑이 꼭 아는 사람끼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나 이 책에 나온 선생님처럼 모르는 이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달았다. 다음으로 '미디어' 챌린지에 도전하였다.

미디어 챌린지에서는 기부 관련 미션을 했다. 전도사님들께서 상황극을 하여 기부 영상을 찍어주셨는데, 너무 인상깊어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난다. 기부의 잘못된 예시와 올바른 예시를 보여주셨는데, 자신이 누구에게 기부를 할 때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혜롭게, 은밀하게' 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하셨다. 정말 유익했다. 나는 그냥 기부라는 행동 자체가 옳바르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기부처에 편지도 쓰며 직접 실천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나도 올바른 기부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으로 '환경' 챌린지에 도전했다. 환경 챌린지에서 기억에 남는 미션은 잔반을 남기지 않고 밥 먹기였는데, 사실 나는 평소에 잔반을 조금 남기는 편이었다. 그러나 이번 챌린지를 통해 그릇에 내가 딱 먹을 양만 덜어서 다 먹었다. 뭔가 잔반을 남길 때보다 남기지 않은 것이 환경을 위해 내가 작게 무엇이라도 한 것 같아 뿌듯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먹을 양만 그릇에 덜어 다 먹기로 했다!

그리고 '나' 챌린지이다. 나 챌린지에서는 총 9개의 미션이 있었고, 그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소중한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였던 것 같다. 난 가족들에게 미안하지만 가장 먼저 내 절친 2명이 떠올랐다. 사실 친구들과 편지는 생일처럼 기념일 때만 써주는데, 갑자기 써줘서 애들이 쏘 당황했다. 그래도 내심 감동한 듯했다. 친구들과 더 돈독해진 것 같고 소중한 사람들이 당연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던 것 같다. 다시 한번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해보게 된 계기여서 너무 애뜻했다! 그리고 '신앙' 챌린지에 도전했다. 처음에 미션을 봤을때 개사를 하라는 말에 좀 당황스러웠다. 막막했지만 곧 가사가 술술 써내려갔다. 나는 원래 노래라고 하면 사랑 이야기가 먼저 떠올랐다. 근데 그 사랑이야기가 하나님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은 왜 생각을 못했을까? 정말 큰 깨달음을 주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원래 내가 듣던 노래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가정' 챌린지이다. 내가 가정을 가장 먼저 도전한 이유는 아무래도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표현하기 부끄러워서 그랬던 것 같다. 하지만 생각보다 가족들과 내 시간을 나누는 것은 간단했다. 동생들과 보드게임을 하며 같이 마주보며 웃었고, 엄마께서 원래 하시던 화장실 청소를 내가 함으로써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아빠께 인증샷을 찍어달라고 하는 등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나눴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항상 가정이라고 하면 막막하게만 느꼈던 내가, 이제는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스스로가 대견스럽다.

그리고 지금, 소감문을 쓰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도전을 하였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써내려가면서 다시 한 번 그때의 내 감정을 상기시키게 되었다. 교회에 직접 나가 하던 수련회도 좋았지만 집에서 내가 혼자 생각하며 미션을 수행해나가는 시간 또한 정말 나 자신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 것 같다. 또한 한 번의 수련회가 끝나 아쉬움이 많지만, 우리가 다시 얼굴을 마주하며 얘기 나누던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신 분들께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백에스더 고등부

청소년수련회
겨울온라인수련회
소감

나도 자랑스러운 10대다

여름수련회는 학원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빈틈 채워 함께 걷는 10대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했던 겨울 수련회는 기회가 되어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참여하게 되었다. 온라인으로 하는 수련회는 처음에는 감회가 새로웠고, 궁금함과 동시에 조금은 걱정이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수련회가 시작되자 생각보다 공감할 만한 주제들이 많았고, 콘텐츠들도 나의 흥미를 끌었다. 하나 하나씩 챌린지를 완료해 나가면서 느낀 뿌듯함은 이번 수련회 활동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 수련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바로 틈새 미션이었다! 정말 재미있고 다양한 게임들이 많았고 내 또래의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펼치는 전쟁(?)은 정말 재미있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공부량이 늘어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틈새 미션과 같은 활동들로 풀 수 있었고 그 시간을 기다리기까지 했다. 특히 친구 챌린지를 하면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던 안수현 의사님의 정신과 마음가짐이 인상깊었고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와 같은 선행을 베풀었을 거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나도 자랑스러운 10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했고 기부를하기로 결정했다.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았던 수련회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련회를 위해 애써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서강 고등부

청소년수련회
겨울온라인수련회
N행시

나는
가만히 있기 보다
정을 나누고
친한 사람들의 마음을
구하며
신실함을
앙망하며
환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경직되지 않고
미지근하지 않게
디어버린 사람들끼리
어지러운 세상을 함께 살아가자

윤혜인 중등부 교사

청소년수련회
겨울온라인수련회
N행시

나는
가장
정직하고
친절하며
구여운
신세대 우리 청소년수련회 친구들
앙! 깨물어주고 싶어요
환상적이고
경이로운
미션을 수행하며
디지털 세대임을 증명하는
어메이징한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이미경 중등부 교사

목회 칼럼

우리 함께 손 잡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어떤 추억을 떠올릴 때 행복하신지요. 저는 어릴 적 나의 놀이터가 되었던 재래시장과 비슷한 풍경을 만나거나, 그 시장에서 품겼던 동일한 냄새를 맡게 되면,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 소환되고, 행복한 추억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는 친구들과 땀범벅이 될 때까지 뛰어놀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친구들과 했던 놀이들 중에는 친구와 손을 맞잡아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중에 ‘쥐와 고양이’ 놀이가 있습니다. 쥐의 역할을 맡은 사람과 고양이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손을 잡고 둥근 원을 만듭니다. 자, 이제 고양이가 쥐를 잡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 놀이는 손을 맞잡고 있는 아이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쥐가 도망갈 수 있도록, 고양이를 피할 수 있도록 쥐가 오면 맞잡은 손을 들어 문을 만들어주고, 고양이가 오면 온 힘을 다해 막아야 합니다. 쥐를 살리기 위해서는 손을 맞잡고 있는 원 모양이 틀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고양이를 막기 위해 여럿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손을 맞잡은 모든 아이들은 손이 끊어질까 노심초사하며 오로지 쥐를 살리기 위해 힘을 모읍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정인이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우리 사회가 들썩거렸습니다. “정인아, 미안해?”, “정인아, 우리가 바꿀게.”라는 글이 SNS를 뒤덮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의 울타리’가 파괴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지 않고 있음으로, 연합과 연대를 이루지 못함으로, 가장 연약한 생명이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신 15:11) 땅에는 언제나 빈틈이 존재합니다. 연합함과 부족함, 가난, 고통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펴서 빈틈을 채우라 명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손을 펴서 다른 누군가의 손을 잡고 삽니다. 누군가와 손을 잡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하고만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바로 손을 뗍니다. 이러한 모습을 담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이기심에서 비롯된 담합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손잡는 삶,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생명을 지키고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의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손 잡아야 합니다. 연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을 소외시키거나 제외시키지 말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서로의 손을 견고하게 맞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하며 살아갈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할 일은 손을 놓지 않는 일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손을 잡을 때, 좌절하고 낙망할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인생은 빈틈 투성이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저마다의 ‘빈틈’(아픔, 슬픔, 고통, 고난, 부족함, 연합함 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빈틈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함께 손잡고” 생명의 울타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생명의 울타리를 만들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임경순 목사

“

연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을 소외시키거나 제외시키지 말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서로의 손을 견고하게 맞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하며 살아갈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

교회 용어, 이것만은 고치자(양코르 연재)

예배, 예식용어 편 11

기도회라고도 하지만 예배는 예배다

영시에배, 자정에배(×), 송구영신예배(○)

영시(0시)는 하루가 끝남과 동시에 또 하루가 시작되는 밤 12시 정각, 곧 자정을 가리키는 시각이다. 교회가 이 시각에 의미를 부여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한 해가 지나가고 다시 시작하는 연말연시의 자정에 국한된다. 그러므로 연말연시의 0시에 드리는 이 예배를 ‘영시에배’나 ‘자정에배’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예배는 감리교회의 존 웨슬리가 언약갱신예배(Covenant Renewal Worship)라는 이름으로 소개하였는데 새로운 해를 맞아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예배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자 낱씨의 특성을 강조하여 야성회(Watch Night Worship)라는 이름이 나왔고, 한국 교회에서는 단순히 시각만을 앞세워 ‘0시에배’라 부르고 있다. 예배가

시작되는 시각을 예배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낮 11시 예배, 밤 7시 예배가 예배의 이름이 될 수 없듯 0시 예배 역시 마찬가지다. 또, 0시는 예배 시작 시각도 아니다. 교회에 따라 밤 11시나 11시 30분에 시작하여 고백의 시간을 갖고 새 언약을 세우는 중에 새해를 알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일을 가리켜 ‘송구영신’, 또는 ‘송영’이라 한다. 이 의미가 예배의 성격 및 내용과 일치하므로 ‘송구영신예배’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 ‘송영’은 ‘송구영신’의 준말이지만, 찬양에서의 ‘송영’과 동음이어서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 / 함줄함울 정리

함글함글 신춘문에 당선자 시상식



2021년 제1회 함글함글 신춘문에 당선자 시상식이 2월 28일 주일 2부 예배 광고 시간에 소박하게 진행되었다. 이날 김화수 담임목사는 시 부문 당선자 김혜중 권사에게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담은 상패를 수여하면서 당선을 축하했다. 예배가 끝난 후 함글함글실에서 간단한 당선자 인터뷰와 함께 꽃다발이 증정되었다. 이번 당선자에게 수여된 상패와 꽃다발은 장로회에서 지원했다.

함글함글

꼬마 인터뷰 | 2021 함글함글 신춘문에 시부문 당선자 김혜중 권사

삶의 여러 장면에서 찾아낸 소박한 시편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시 부문 심사를 맡았던 안현미 시인이 미등단한 분의 작품으로는 완성도가 높다고 칭찬하시는데 혹시 문학 공부를 따로 하셨었나요?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간호학과를 나와서 전문적인 문학 공부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어렸을 때에도 문학소녀가 아니었고요. 십여 년 전 오십대 초에 송파문화원에서 문학 창작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선생님이 시 창작에 집중해보면 어떻겠냐는 권유를 해주셔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몰랐지만 시에 좀더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그분은 문학 이론을 강조하기보다 삶의 여러 느낌들을 쓰면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문학에 대해서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그 무렵부터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장면들을 시로 표현해보려 했었지만, 스스로 문학을 한다고 생각해보는 적은 없었습니다.

주님의교회 다시신지는 오래 되셨죠?

처음 주님의교회 출석한 것은 교회 인근 아파트로 이사온 뒤인 1997년 가을이었어요. 원래 부모님이 다니시던 강북 교회에 적을 두고 있었지만, 굳이 먼 곳으로 다닐 필요가 있나 싶어서 바로 옆에 주님의교회가 있기에 다녔었지요. 그때 이재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강남 YMCA건물에서 드리던 수요일예배도 찾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정식으로 등록한 것은 2000년이었습니 다. 그 무렵 남편을 따라 외국에 살다 오는 바람에 간호학쪽에서 저의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에서 좀 내적 방황을 겪었는데 임영수 목사님 시절에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치유가 되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이를 통해서 호스피스 팀에서 사역을 하곤 했었지요.

이번에 응모하신 시를 쓰게 되신 계기가 따로 있나요?

신춘문예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게다가 3편을 내야 하더라고요. 우선 <가을 산길에서>라는 시는, 작년 가을 저희 친정 어머니가 노환으로 누워 계실 때 매주 찾아뵙곤 했는데, 그 어느 가을날 산길에서 눈여겨 본 풍경과 느낌을 메모해 놓았다가 시로 쓴 것이었어요. <경계선>과 <시를 읽는 소리는>은 송파문화원 시절 동인활동을 할 때 썼던 습작이었습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느껴졌던 여러 생각들을 바탕으로 썼던 시였지요.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 걱정으로 경황이 없던 무렵이어서 부랴부랴 이 세 편을 골라서 응모했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얼마 안되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당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서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상으로 돌아왔구나, 하고 혼자 스스로 위로를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쓰셔야겠지요?

요즘 사람들이 문학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글을 쓰시는 분들은 많지만, 문학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코로나19를 맞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요즘인데, 스스로 삶을 되돌아보면서 글을 쓰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함글함글에서 이렇게 격려도 해주셨으니 좀 더 진지하게 시를 써보려 합니다. 요즘 시인들 시도 좀 많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글함글

교회 일정

3/21(주일)	사순절 5
3/28(주일)	종려주일
4/4(주일)	부활주일

알립니다

1. 주님의교회 가족 공모전 '나의 주님의교회'

기간 : 3/14(주일)~3/27(토)

내용 : '나의 주님의교회' 라는 주제를 그림, 사진, 웹툰, 콜라주, 시, 수필, 일기, 영상, 음악 등 다양한 장르로 표현

문의 : 이상훈 목사(010.9808.4788)

2. 입교 및 세례교육

대상 :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

교육 : 3/21(주일)까지 오후 2:30 / 온라인(ZOOM)

문의 : 이창수 안수집사(010.5472.7059)

입교 · 세례예식 : 3/28(주일) 3부 예배시

3.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주제 : 믿음의 사람들

일시 : 3/29(월)~4/3(토) 오전 5:20

방법 : 온라인(유튜브 실시간 방송) 및 오프라인 병행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심동욱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는 자들과 함께 올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hamletter@daum.net

